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곽윤복¹, 이은희², 오미숙^{3*}

¹군산간호대학교, ²군장대학교, ³전주비전대학교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Humanism, and Ageism on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Yun-Bok Kwak¹, Eun-Hee Lee², Mi-Sook Oh^{3*}

¹Kunsan College of Nursing

²Department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³Department of Nursing, Vision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간호 대학생 207명으로,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평소 알고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간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beta = .272, p < .001$), 휴머니즘($\beta = .247, p < .001$), 연령주의($\beta = -.196, p < .003$)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노인 간호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19.2%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과 휴머니즘을 향상시키고,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 to December 25, 2022.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07 nursing student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3.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greater when students were interested in elderly issues and knew someone aged 65 or older.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were interest in elderly issues ($\beta = .272, p < .001$), humanism ($\beta = .247, p < .001$), and ageism ($\beta = -.196, p < .003$),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9.2%. Therefore, the study confirmed that nursing students' interest in elderly issues, humanism, and ageism influences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Educational method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humanism that fosters interest in elderly issues and reduces ageism.

Keyword : Nursing Student, Knowledge,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Oh(Department of Nursing, Vision College of Jeonju)
email: oms0914@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Revised January 4,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전체 인구의 18.4%로 고령사회에 해당하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노인 인구가 늘 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 전문적인 노인 간호가 요구되고 있다[2]. 특히 노인을 위한 돌봄 간호 및 노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 인력의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3].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에 대해 얼마나 자발적인 간호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노인 간호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 개념이다[4]. 노인 간호의도는 간호 수행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5], 즉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간호에 대한 실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이 노인 간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6], 일반적인 대상자에 비해 노인 대상자의 실습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7]. 그러므로 노인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노인 간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4],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으면 연령주의, 노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8]. 즉 노인 간호에 있어 지식의 부족은 노인 간호의 질을 저하시킨다[9]. 간호사에게 노인 간호와 관련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가 노인 간호 수행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간호 대학생이 노인 간호에 있어 올바른 지식을 갖고 노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경험과 자기결정을 중요시하는 간호실무 핵심가치로서 간호사의 도덕적 실무의 중요개념이다[11]. 노인복지정책의 근본 가치로서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 없이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는 것으로 [11,12], 고령화 시대에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휴머니즘은 간호 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13], 요양보호사의 휴머니즘이 돌봄 제공에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4]. 향후 노인 간호의 돌봄 제공자인 간호 대학생의 휴머니즘을 확인하고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주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차별, 부당한 처우, 편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15]. 과거에 비해 노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할 기회가 적어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16].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다소 높다고 보고되며[17],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노인에 대한 관심, 노인 간호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18].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간호 대학생의 치매지식이 높으면 연령주의가 낮고, 지식과 휴머니즘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3], 치매와 관련된 지식과 치매노인에 국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간호 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 노인 간호를 실천할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인식하는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의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기간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A도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로 1, 2학년 학생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 *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선행연구[19]를 참고하여 유의한 변수로 검정된 15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9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총 설문지 21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7부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 [20]에 의해 처음 개발이 되었고,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를 사용하였다[21].

이 도구는 노인의 신체 변화나 사회적·심리적 영역에 대해 질문하며, 노화에 대한 편견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도구는 총 25 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0~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 김수옥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8$ 이었다.

2.3.2 휴머니즘

간호대학생의 휴머니즘은 Nilsson[23]이 개발하고, 문숙자 등[1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인간본성, 감정의 개방, 대인간의 온정, 정의와 안념, 낭만적 합리주의의 5개 하위영역으로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머니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전체 Cronbach's $\alpha=.92$ 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5$ 이었다.

2.3.3 연령주의

대학생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김주현[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1개 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는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 기피/회피, 노인집단과의 분리, 연령(고령)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총 21문항으로 각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3.4 노인 간호의도

노인 간호의도는 Zhang 등[4]이 개발한 도구로 김연숙 등[19]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간호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Zhang 등[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A도 소재 간호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에 모집편지를 게시하여 해당 연구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답례품으로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교육 이수 후 대상자 모집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암호화된 파일에 3년

간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 목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조사로 연결되어 응할 수 있었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3.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 간호의도와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207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6.13(±6.82)세 이었고,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26세 미만이 147명(71%)으로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36명(17.4%), 여자가 171명(82.6%)이었으며, 종교는 없음이 130명(62.8%)으로 많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158명(76.3%)이었다.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7명(56.5%)이었고, 노인대상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7명(85.5%)이며, 평소 알고 지내는 노인이 없음이 116명(56%)으로 학교에서 노인 간호학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148명(71.5%)으로 많았다.

3.2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5점 만점에 13.74±2.36점이었고, 휴머니즘은 7점 만점에 5.74±0.72점, 연령주의는 5점 만점에 2.46±0.52점, 노인 간호의도는 5점 만점에 3.83±0.8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6	147(71.0)
	≥27	60(29.0)
Sex	Male	36(17.4)
	Female	171(82.6)
Religion	No	130(62.8)
	Yes	77(37.2)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	49(23.7)
	Yes	158(76.3)
Living experience with the elderly	No	90(43.5)
	Yes	117(56.5)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of elderly	No	30(14.5)
	Yes	177(85.5)
Elderly person I usually spend time with	No	116(56.0)
	Yes	91(44.0)
Learning experience in gerontological nursing	No	59(28.5)
	Yes	148(71.5)

Table 2. Degree of independent variables (N=207)

Variables	Mean±SD	Min~Max	Range
Knowledge of the elderly	13.74±2.36	6.0-19.0	0-25
Humanism	5.74±0.72	3.27-7.0	1-7
Ageism	2.46±0.52	1.29-3.95	1-5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3.83±0.81	1.4-5.0	1-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t=-4.305, p<.001$), 평소 알고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t=-2.339, p<.02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3.4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r=.151, p<.030$)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주의($r=-.239, p<.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휴머니즘과 노인 간호의도($r=.276, p<.001$)는 양의 상관관계, 연령주의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26	13.68±2.40	-.541 (.589)	85.48±10.94	-1.289 (.199)	50.46±10.65	-2.389 (.018)*	18.89±4.12	-1.482 (.140)
	≥27	13.88±2.27		87.56± 9.38		54.41±11.15		19.81±3.85	
Sex	Male	13.88±2.64	.404 (.687)	84.94±11.57	-.718 (.473)	52.47±13.11	.521 (.603)	18.88±3.94	-.447 (.655)
	Female	13.71±2.30		86.33±10.32		51.42±10.44		19.22±4.08	
Religion	No	13.87±2.31	1.052 (.294)	86.33±10.20	.437 (.663)	50.53±10.92	-1.842 (.067)	19.01±4.27	-.685 (.494)
	Yes	13.51±2.44		85.67±11.12		53.41±10.75		19.41±3.66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	13.61±2.61	-.436 (.663)	85.75±11.98	-.266 (.790)	53.20±12.31	1.139 (.256)	16.79±4.71	-4.305 (<.001)**
	Yes	13.78±2.30		86.21±10.14		51.16±10.50		19.94±3.53	
living experience with the elderly	No	13.88±2.43	.753 (.452)	85.68±10.90	-.500 (.618)	51.81±10.65	-.230 (.819)	18.77±4.04	-1.269 (.206)
	Yes	13.63±2.31		86.43±10.31		51.45±11.21		19.50±4.05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of elderly	No	14.30±2.15	1.385 (.168)	85.00±10.14	-.620 (.536)	51.43±9.16	-.096 (.923)	18.20±3.42	-1.442 (.151)
	Yes	13.65±2.39		86.29±10.64		51.64±11.25		19.35±4.14	
Elderly person I usually spend time with	No	13.83±2.51	.633 (.528)	84.38± 9.86	-2.666 (.008)**	51.22±10.53	-.571 (.569)	18.58±4.01	-2.339 (.020)*
	Yes	13.62±2.16		88.26±10.99		52.09±11.44		19.90±4.01	
Learning experience in gerontological nursing	No	14.01±2.15	1.049 (.295)	86.30±10.64	-.184 (.855)	52.86±11.90	1.044 (.298)	19.59±3.98	.960 (.338)
	Yes	13.63±2.44		86.00±10.52		51.10±10.50		18.99±4.08	

*p<0.05, **p<0.01

와 노인 간호의도(r=-.222, p<.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N=207)

Variables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r(p)		
Humanism	.151(.030)*	1	
Ageism	-.239(<.001)**	-.013(.853)	1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105(.134)	.276(<.001)**	-.222(<.001)**

*p<0.05, **p<0.01

3.5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중 노인 간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노인문제에 관심과 주요 변수인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를 독립변수로, 노인 간호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65로 2에 근접해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차한계는 0.917 ~0.98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2~1.091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하였고(F=10.83, p<.001), 노인문제 관심(β=.272, p<.001), 휴머니즘(β=.247, p<.001), 연령주의(β=-.196, p<.003)순으로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19.3%였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N=20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ce)	8.637	3.077		2.807	.005
Interest in elderly issues	2.495	.577	.272	4.300	<.001**
Elderly person I usually spend time with	.885	.522	.109	1.696	.091
Knowledge of the elderly	.028	.112	.016	0.250	.803
Humanism	.095	.025	.247	3.830	<.001**
Ageism	-.073	.024	-.196	-3.025	.003**

F=10.83(p<.001) R²=.212 Adj. R²=.193

*p<0.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를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지식과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5점 만점에 13.74점으로 55.0%의 정답율을 보였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a와 Park[25]의 12.43점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 보다도 본 연구 대상자의 71.5%가 노인 간호학 학습경험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의 간호를 책임지게 될 간호 대학생들은 초고령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노인 간호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개별 맞춤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가족화 사회에서 젊은 층들과 노인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므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다[22]. 정확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환자에게 주어지는 간호의 질 서비스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노인 지식의 교육을 위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휴머니즘 점수는 7점 만점에 5.74점으로 중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eom[13]의 5.49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Moon과 Ahn[11]의 5.39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eom과 Seo[14]는 5.7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연령, 학벌, 경험, 직업군 등에 따른 차이로 고려되며 추후 직업군별 휴머니즘에 대한 차이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휴머니즘은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율적이고 윤리적이며 동등성을 중심으로 인간 경험과 가치를 존중한다[26]. 간호사는 인간중심의 돌봄을 기본핵심 가치로 삼아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며[11] 사랑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은 의료 환경이라는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통하여 능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관계 속에서 휴머니즘의 핵심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25].

그러한 조직문화는 환자의 돌봄으로 이어져 사랑과 온정으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간호에 함께 참여하게 하므로서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휴머니즘은 아는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인간을 중요시 생각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결과라고 사료되어진다[27].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인간존중의 기본가치인 휴머니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연령주의는 5점 만점에 2.46점으로 중간 이하의 점수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eom[13]의 2.50점과 유사한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Yeom과 Seo[14]의 2.69점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요양보호사는 직업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노화로 인한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에 점차 둔감해 진 것이라 할 수 있다[14].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주의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령주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8,29]와 일치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인을 바라보는 편견으로 노인을 무시하고 기피하게 되는 현상[13]으로 사회의 문화와 규범체제 안에서 노인을 대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3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돌봄 현장에서 노인이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게 된다[11].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세대 간의 통합을 아우를 수 있는 긍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인간의 생의 한 부분인 노인의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는 5점 만점에 3.8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연구한 Kim과 Jang[19]의 3.50점, 중국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Zhang 등[4]의 연구에서는 3.55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3]은 3.50점으로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와 평소 조부모 외에 알고 지내는 65세 이상의 아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im과 Jang[19]은 간호 대학생의 노인관련 접촉의 빈도가 많을수록, 노인 간호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노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행연구[3]와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도 있다[19]. 이는 노인과의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질적인 접촉빈도를 늘리며 노인과의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거로 인하여 서로 부딪치며 살아갈 때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겪은 상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이 노인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봉사학점을 개설하여 노인과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접촉의 기회를 갖게 한다면 노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과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휴머니즘과 노인 간호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1]. 휴머니즘은 전문 간호지식, 경험, 직관 등과 관련이 있어 이를 통해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32], 휴머니즘이 높은 사람은 업무 수행능력이 높았고, 전인적 간호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지식이 높은 경우 휴머니즘과 돌봄 행위가 높게 나타났다[14]. 이는 노인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을 이해하고 온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에게 휴머니즘에 입각한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인 간호학 교과목의 정확한 지식을 교육하여 인간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의 노화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인간 존중의 기본핵심인 휴머니즘을 실천한다면 노인 돌봄의 노인 간호의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과 연령주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노인 간호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공감형성과 질적인 서비스가 높아졌으며[25], 노화지식이 높을수록 노인 차별 인식이 낮아지고[31],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연령주의가 낮아진다[13]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휴머니즘은 연령주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노인 간호의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 연구결과[14]와 일치하였다. 또한 휴머니즘은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중심 돌봄과 노인을 간호하려는 따뜻한 온정과 노인 돌봄의 실천을 통해 노인 간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노인 간호의도와 상관성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총 19.3%의 설명력을 보였다. 평소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 휴머니즘이 높은 경우, 연령주의가 낮은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13,19]. 노인 간호의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부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일의 변화를 발전시켜 나갈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노인 간호 수행력이 증가하여 노인 간호의도가 높아지게 되며[3], 노인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져서 노인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32].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연구결과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치를 인정하는 휴머니즘 안에서 노인과의 접촉빈도를 높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써 연령주의는 낮아지고 노인 간호의도는 높아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에게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 함양을 위하여 간호대학의 노인 간호학 교과목 개설을 통한 노인의 정확한 지식교육과 노인 간호학 임상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노인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나 노인 봉사 경험을 통해 노인과의 밀접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휴머니즘은 향상되고 노인 간호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의 일반적 특성 중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아는 노인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휴머니즘과는 양의 상관관계, 연령주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휴머니즘, 연령주의는 노인 간호의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변수로 확인하였으며,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간호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지역적, 직종별로 다양한 대상자의 반복 연구를 통해 노인 간호의도 영향요인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간호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지역적, 직업적으로 다양한 대상자의 반복 연구를 통해 노인 간호의도 영향요인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 대학생들의 노인 간호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간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노인관련 교육과 노인 간호학 임상실습 진행, 노인관련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과의 밀접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3 Statistics of the elderly(2023),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2&vw_cd=MT_TM1_TITLE&list_id=101_A05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1_TITLE&path=%252FeasyViewStatis%252FcustomStatisIndex.do (accessed Nov. 25, 2023)
- [2] J. Y. Cha, D. Y. Jung,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in geriatric nursing of general hospital", *Health & Nursing*, Vol.31, No.1, pp.43-52, 2019. DOI: <https://doi.org/10.29402/HN31.1.5>
- [3] J. Y. Park,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care willingness towards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42, No.1, pp.37-50, 2022. DOI: <https://doi.org/10.31888/JKGS.2022.42.1.37>
- [4] S. Zhang, Y. H. Liu, H. F. Zhang, L. N. Meng, P. X. Liu, "Determinan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 willingness towards the elderly in China: Attitudes, gratitude and knowledge", *Nurse Education Today*, vol.43, pp.28-33,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6.04.021>
- [5] J. H. Kim, H. S. Jeong, "Influencing factor on the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nurses working at geriatric hospitals: focusing on empath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2, pp.840-850,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840>
- [6] X. L. Liu, H. L. Cheng, S. C. Lam, "Predicti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care for older adults: a multicenter cross-sectional study in Asia", *Nursing Open*, Vol.9, No.2, pp.1-10, 2021. DOI: <https://doi.org/10.1002/nop2.916>
- [7] I. S. Jang, Y. L. Kim, Y. Kim,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care for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7, No.1, pp.1-9, 2019. DOI: <https://doi.org/10.11114/ijss.v7i1.3726>
- [8] H. J. Kim, Y. M. Lee, "Influence of ageing knowledge and family strengths on ageism among the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21, No.2, pp.83-90, 2018. DOI: <https://doi.org/10.7587/kjrehn.2018.83>
- [9] J. A. Gu, *Influence of knowledge, attitude toward the Older adults and moral sensitivity on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pp.31-35, 2022.
- [10] J. Y. Park, M. R. Park, H. N. Yeo, N. J. Je, "The effects of death awareness,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clinical competency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1, pp.273-283,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1.273>
- [11] S. J. Moon, S. H. Ahn, "An Explanatory Model of Moral Courage as a Concept of Nursing Practice Domain",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22, No.4, pp.341-358, 2019.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9.22.4.341>
- [12] M. S. Rho, Humanism and senior care welfar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5, pp.119-125.
- [13] E. Y. Yeom, "The influence of dementia knowledge, ageism and humanism on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8, pp.629-639,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629>
- [14] E. Y. Yeom, K. S. Seo, "The effect of dementia

- knowledge, ageism and humanism on caring behaviors of certified caregivers in nursing home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4, pp.23-29, 2021.
DOI: <https://doi.org/10.21097/ksw.2021.11.16.4.23>
- [15] S. D. Chung, J. H. Jeong, M. R. Kim, “The Influence of ageism and age integration on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8, No.4, pp.5-24, 2016.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6.68.4.001>
- [16] K. S. Lee, J. W. Lee, “The influence of the older adults-related experience on the Image of older adults and age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40, No.6, pp.1267-1286, 2020.
DOI: <https://doi.org/10.31888/JKGS.2020.40.6.1267>
- [17] D. R. Kim, S. Y. Lee, S. H. Lee, Y. J. Lee, Y. J. Lee et al.,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older adults with dementia: focusing o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ageis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7, pp.373-381,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7.373>
- [18] Y. Liu, I. J. Norman, A. E. Whil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50, No.9, pp.1271-1282, 2013.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11.021>
- [19] Y. S. Kim, I. S. Ja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willingness towards older adult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669-1683,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3.1669>
- [20] E. B. Palmore, *Facts on Aging Quiz Second Ed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p178.
- [21]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1, pp.31-46, 2002.
- [22] S. O. Kim, H. S. Oh, M. S. Wang,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63-170,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63>
- [23] A. Nilsson, “Humanistic and normativistic world views: distinct and hierarchically structur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64, pp.135-140, 2014.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4.02.037>
- [24] J. H. Kim, “Ageism survey: a report on instrument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5, No.1, pp.53-75, 2012.
- [25] J. Y. Ha, J. Y. Park,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30, No.4, pp.539-549, 2019.
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9.30.4.539>
- [26] E. W. Demenchonok, The quest for genuine democracy: a promise of democracy to come. in civility, nonviolent resistance, and the new struggle for social justice, p342, BRILL publishers, 2019, pp.234-259.
DOI: https://doi.org/10.1163/9789004417588_014
- [27] D. Létourneau, J. Goudreau, C. Cara, “Facilitating and hindering experiences to the development of humanistic caring in the academic and clinical settings: An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study with nursing students and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7, No.1, pp.1-14, 2020.
DOI: <http://dx.doi.org/10.1515/ijnes-2019-0036>
- [28] J. A. Kim, J. Y. Ha, “Factors Influencing Ageism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5, No.5, pp.393-403, 2019.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9.25.5.393>
- [29] S. H. Bae, G. Y. Kim,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ageism among korea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ing anx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2, No.3, pp.260-281, 2022.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2.42.3.260>
- [30] S. T. An, S. Y. Lee, S. D. Chung, “How indirect contacts of older adults through media influence ageism: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nd social norm”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7, No.3, pp.763-781, 2017.
- [31] J. N. Yang, E. J. Choi, H. S. Kim,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aging knowledge on the elderly discrimination recognition using the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 pp.59-71,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059>
- [32] J. H. Lee, J. A. Seong, “The effect of knowledge, attitude and empathy of care givers for elderly on quality of serv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4, No.4, pp.97-109, 2020.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0.4.4.97>

곽 윤 복(Yun-Bok Kwak)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 2020년 8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우석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1년 8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치매

오 미 숙(Mi-Sook Oh)

[정회원]



- 2016년 3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정신간호, 시뮬레이션